

TALK²
[특투]

CSG

CSG Magazine

Vol.08

2025년 2월호

TALK² TO
EACH OTHER.
EXCHANGE
IDEAS.
STAY CONNECTED.

Contents

New Year's Message

올사년 새해, 회장님 신년사

2025 신년사 4

Arete 탁월(卓越)

The AceMaker

창신인, 에이스메이커들의 이야기

특뷰 [TALK² + Interview] 9

기획 창신의 새로운 얼굴을 만나다

홍상규 GM / 김새봄 대표

One in a Million 18

첫 마라톤에 3시간의 벽을 넘다

CEO 두줄 노트 22

창신의 아퀴덕트

Special Page 24

NIKE CEO 방문

Manufuturing

창신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MX Designer 29

Sportswear팀

CSG News Pick (#창_뉴_픽) 34

#조직문화 #Offshore

Advertisement 36

QRC

Trend Catcher 38

News Clipping 74호

2012
魂入事事
山卓志立

2013
他餘同行
群越不可

2014
當同難有
享同福有

2015
細必大事
人各就各

New Year's Message

을사년 새해, 회장님 신년사

2017
命鷹

2018
方邊界越

2019
知無知之
成竟志有

2020
新為格創

2022
越卓恒持

2023
晦養

2024
動

2025
越卓

2025 신년사

Arete 탁월卓越

양희(養晦)의 시간도, 같은 목표를 향해
한마음으로 움직였던(動) 시간도
궁극에는 ARETE-탁월(卓越),
즉 가장 좋은 삶에 이르기 위한 과정일 것입니다.
ARETE-탁월은 단순히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 충실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와 함께 행복감을 가져 봅시다.
ARETE-탁월을 향한 여정을 통해
2025년 한 해 스스로 '잘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봅시다.

乙巳年元月 癸卯년 새해 아침
정환일

The AceMaker

창신인, 에이스메이커들의 이야기

The AceMaker

The AceMaker | 특부

특부 [TALK² + Interview]

창신 에이스들의 성장 스토리와 도전을 집중 조명합니다

기획 창신의 새로운 얼굴을 만나다

QD와 서흥,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QD와 서흥은 단순한 제조와 자재 구매를 넘어 창신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홍상규 GM**은 QD의 생산성과 운영 최적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제조 혁신을, **김새봄 대표**는 서흥의 전략적 역할을 강화하며 조직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혁신을 고민하고, 최적의 해답을 찾아가는 두 리더. 이들의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

길을 만들고,
가능성을 확장하는
두 리더의 혁신 스토리

홍상규 GM

변화를 이끄는 힘, 경청과 신뢰에서

김새봄 대표

작은 변화부터,
서흥을 다시 정의하다

QD

결국 답은 하나,
“경청하고 배우는 자세”



경청, 그리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

QD 홍상규 GM

35년간 조직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경청’과 ‘신뢰’였다. 숫자를 다루는 경리 업무에서 시작해 글로벌 비즈니스까지 경험하며, 위기의 순간마다 조직에서 ‘해답을 찾는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제, QD의 변화를 이끌며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속에서 빠른 적응력과 유연한 사고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두려움 없는 조직, 열린 소통이 만드는 혁신, 홍상규 GM으로부터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Q 그동안 어떤 업무를 해왔나

1990년, 창신에서 경리 업무를 시작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었지만, 단순한 회계 관리가 아니라 경영의 흐름을 읽고 조직을 운영하는 기본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1997년, 나이키와 협업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을 익혔고, 2004년 QD로 발령받아 해외 시장을 직접 경험했다.

QD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해외 근무가 아니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수차례 위기 속에서도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변화를 이끌어야 했다.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왔지만, 그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렇게 위기를 넘고,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깨달았다. 경영은 결국 사람과 조직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읽으며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Q 해외에서 근무하며 배운점이라면

중국으로 발령받기 전까지는 익숙한 방식으로만 일하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 여겼다. 해외 경험 없이도 충분히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중국에서의 업무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마주하는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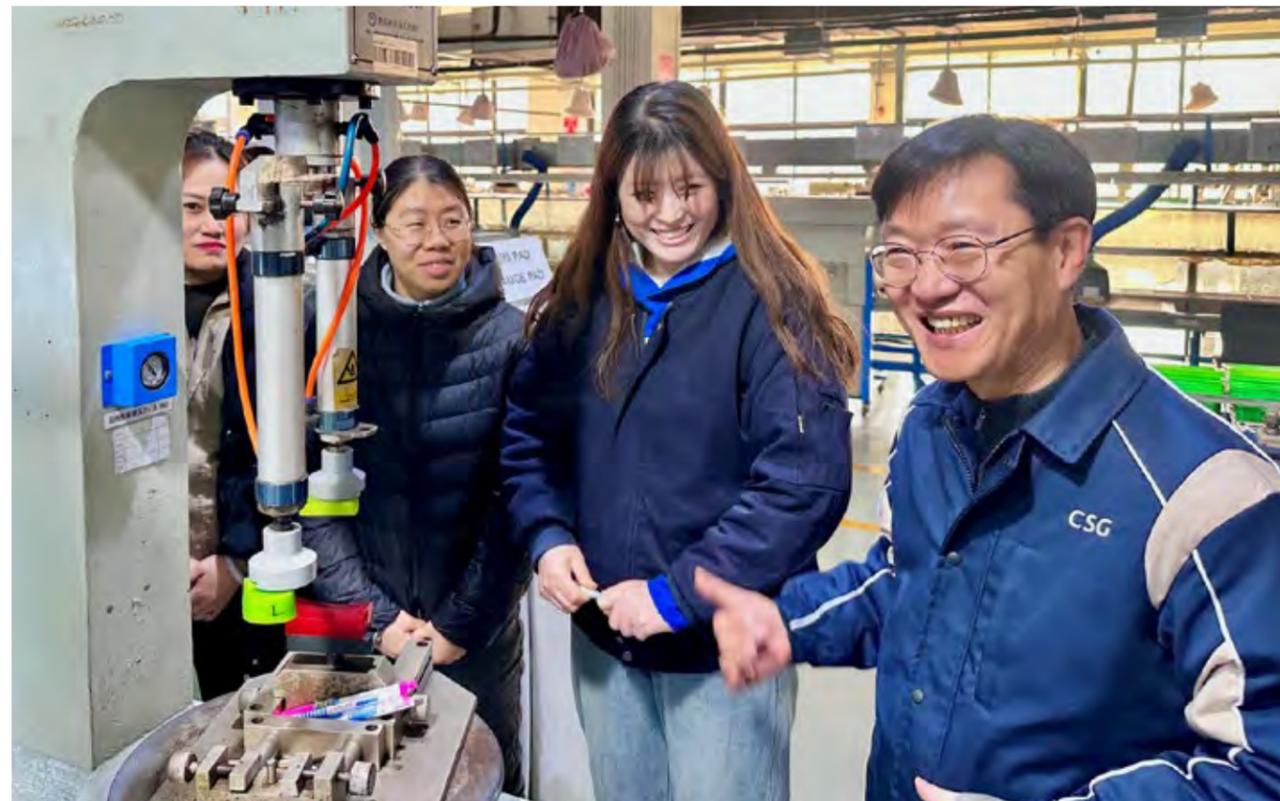
낯선 환경에서 처음 맞닥뜨린 것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었다. 한국에서 당연했던 방식이 중국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한국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오해를 낳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특히 중국에서는 ‘관시(關係, 관계)’가 중요한 문화적 요소였다. 단순히 업무를 지시하고 결과를 기대하는 게 아닌, 신뢰를 쌓고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수였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답은 하나였다. “경청하고 배우는 자세”. 해외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다른 문화에서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닌, 한정된 경험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Q 전 세계 유일의 나이키 육상화
생산 공장인 QD의 의미**

QD는 글로벌 시장에서 나이키의 핵심 제품을 생산하는 전략적 거점이다. 특히 육상화는 초경량 설계와 최적의 반발력 등 정밀한 기술력과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수적인 제품이다. 작은 오차도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QD는 단순한 생산 공장을 넘어 첨단 기술과 품질 혁신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신발이 세계적인 육상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늘 최고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앞으로도 QD는 생산 역량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글로벌 기준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전시켜,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스포츠 신발 제조 공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의견 내고
실패를 두려워 않는
두려움 없는 QD로 만들어 나갈 것”



Q 앞으로 QD가 나아가야 할 방향

QD는 단순 제조 공장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제조 혁신을 이루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물류 동선을 최적화하고, 불필요한 공정을 줄이며,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최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더 효율적이고 유연한 전략을 구축할 기회이기도 하다. 단순히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읽고, 생산 방식을 최적화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품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단기적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구축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것이다.

Q 리더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은?

35년간 조직에 몸담으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경청과 신뢰’다. 리더의 역할은 단순히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조직이 경직되면 직원들은 도전보다는 실수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게 된다. 하지만 혁신과 성과 창출은 ‘두려움 없는 조직’에서 나온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읽은 책 ‘두려움 없는 조직(The Fearless Organization, 에이미 에드먼슨 저)’이 이러한 점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하고, 조직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조직이 유연하고 열린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경직된 구조를 개선하고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리더십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SEOHEUNG



"서흥,
창신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틀을 깨고, 기회를 만든다

서흥 김새봄 대표

새로운 시각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조직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김새봄 대표. 또 다시 변화의 출발선에 선 그는 서흥을 단순한 자재 구매 조직에서 벗어나, 창신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제 막 시작된 여정. **기존의 틀을 깨고,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김 대표가 바라 보는 혁신과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창신에서 어떤 일을 해왔나

RSM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영업을 거쳐 창신정밀과 서흥을 이끌기까지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창신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6개월 이상 다닌 회사가 없을 정도로 조직 문화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창신에서 여러 역할을 맡으며 **조직과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웠다**. 영업부터 **비용 분석, 협상, 비즈니스 전략**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큰 조직을 운영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작은 변화들이 자부심을 높이고,
조직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값진 배움을 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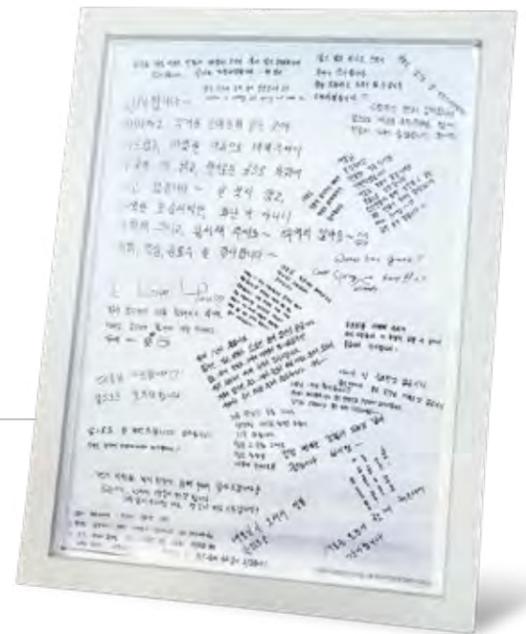
2022 CSTC Mid-Year Strategy Workshop

Q 기억에 남는 도전이나,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순간을 꼽는다면

2021년 12월, 창신정밀 대표로 발령받은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금형과 사출이라는 전문 영역에 경험이 없었고, 공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금형과 사출을 아는 전문가는 이미 많다. **네가 가진 다른 시각으로 조직을 바라보고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한다**"는 리더의 한 마디가 나만의 방식으로 조직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도전이자 전환점으로 만들고자, **조직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은 변화부터 시도했다**. 직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커피 기계를 설치하고, 탕비실을 만들고,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는 등 **근무 환경을 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단순한 시설 개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직원들이 일터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이러한 작은 불편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CSTC 임직원들이 취임 1주년을 기념하며,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직접 제작한 롤링페이퍼. 크기가 커서 사진으로 남겨 액자에 담아 보관 중인 김새봄 대표



그러나 물리적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조직의 변화를 이끌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직원들과 1:1 미팅을 진행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조직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변화의 시작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 직원들이 조직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직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조직 문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며, **리더로서 가장 값진 배움을 얻었다**.



Q 조직을 이끌며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

조직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칙'과 '소통'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신뢰 구축의 첫걸음이라 믿는다. 흔들림 없는 원칙이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고,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조직이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수적이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며,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단순한 지시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나이키와의 미팅 경험을 통해 더욱 단련되었다. 영업 미팅에서는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닌, 상대의 반응을 읽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필수적이었다. 미팅 전 예상 질문을 뽑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순발력과 집중력이 길러졌고, 이는 현재 조직을 운영하며 회의나 1:1 미팅을 진행할 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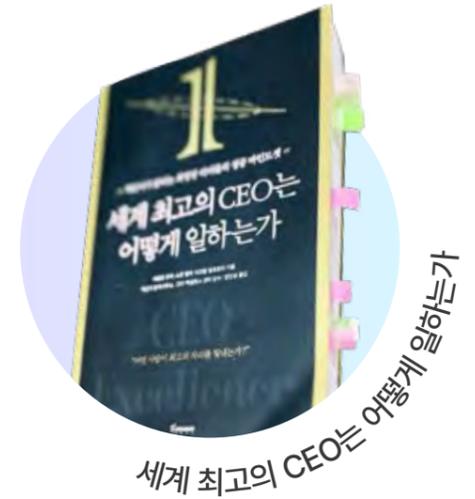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유연한 소통 구조를 만들어 조직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생각한다. 직원들이 동기부여를 받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여성 리더가 갖는 강점도 최대한 활용해왔다.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유연한 접근 방식과 세밀한 소통이 도움이 되었다.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으며, 오늘도 이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직원들과 변화의 필요성 공유,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성장해 나갈 것”

Q 인사이트를 얻은 책이 있다면

리더십을 고민할 때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책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는 편이다. '세계 최고의 CEO는 어떻게 일하는가' 역시 많은 통찰을 준 책이다. 단순한 경영 전략을 넘어, 글로벌 최정상 CEO 67명의 리더십과 의사결정 원칙을 분석한 맥킨지의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성과를 이끄는 것만큼이나 구성원들이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리더의 핵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책에서 강조하는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알고, 그 안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는 서슴치 지향해야 할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누군가를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결국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믿는다. 조직을 성장시키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길 바란다. 글로벌 기업의 최상위 경영자들이 어떤 원칙과 전략으로 조직을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Q 서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가?

서흥을 단순한 자재 구매 및 관리 조직에서, 창신의 생산 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핵심 부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기존의 공급 중심 역할을 넘어, 자재 품질 개선, 구매 리드타임 단축, 신발 제조 관련 기술 영업 역량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업무 방식을 최적화하고, 전략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공급망 혁신을 추진하며, 단순한 운영 조직이 아닌 창신의 미래 경쟁력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내가 그리는 방향이다.

그러나 어떤 변화도 직원들과의 공감대 없이는 불가능하다. 변화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직원들이 단순한 구매 업무를 넘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서흥을 창신의 미래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서흥을 이끌며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다.



백만 명 중 하나

창신인만의 특별한 이야기

ONE *maximize our possibility* IN A MILLION

숨겨진 재능과 독창적인 감각으로 반짝이는 창신인들의
다채로운 삶과 열정을 공유합니다.

각자의 개성과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창신인만의 유일무이한 가치를 조명합니다.

백만 명 중 하나, 내 주변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창신인을 알려주세요!

하단 제보하기 버튼을 누르면 구글 폼으로 연결됩니다.

"테니스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 3연패 000 사원"

"힙합부터 왁킹까지, 10년차 스트릿 댄서 000 과장"

"다이빙 자격증만 5개, 프리다이버 000 차장"

제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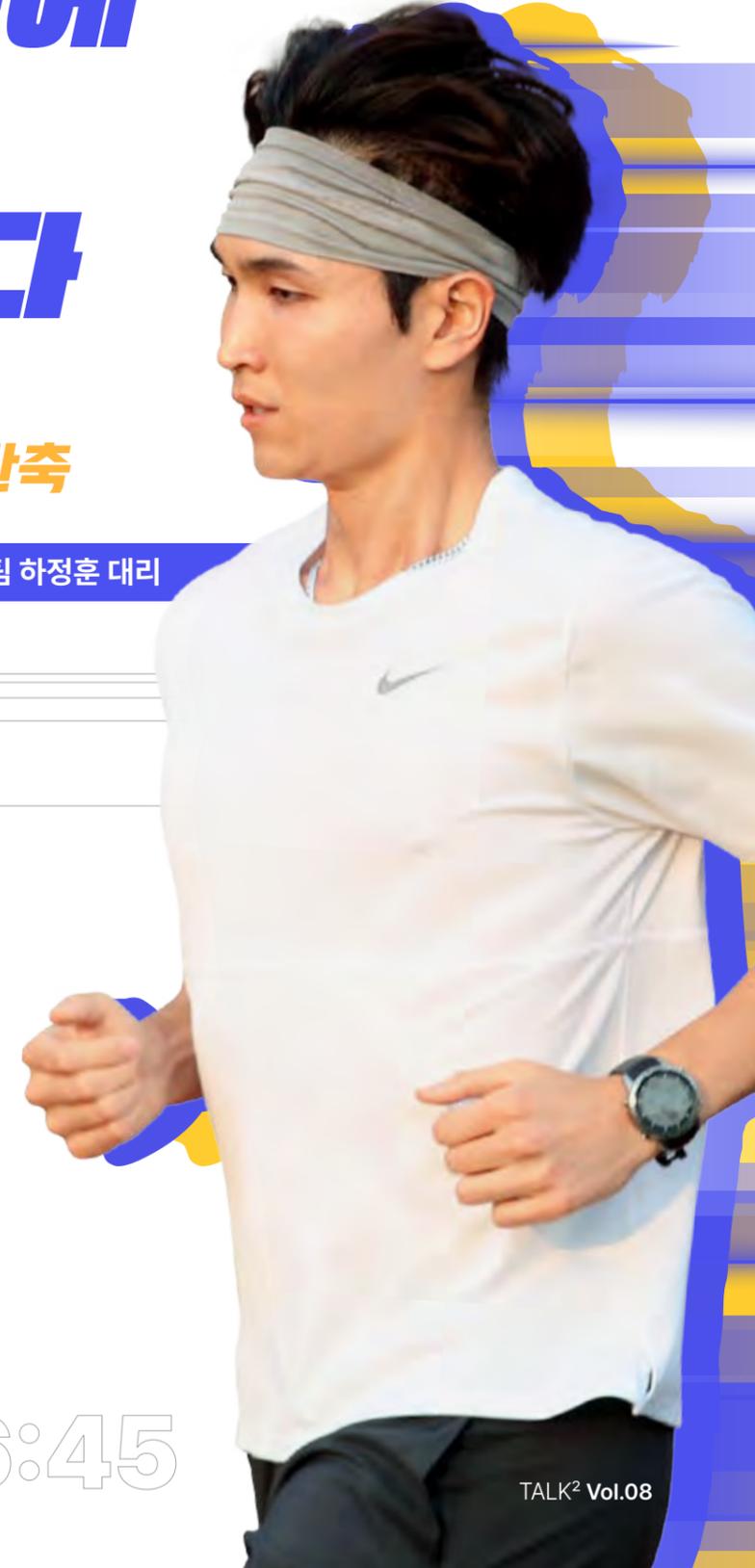


EP.01

첫 마라톤에 3시간의 벽을 넘다

: 15일 만, 2nd 서브3에서 37초 단축

BS팀 하정훈 대리



마라톤 풀코스, 42.195km를 3시간 안에 완주하는 **Sub-3(이하 서브3)**. 이 기록을 달성하는 러너는 전체 대회 참가자의 단 **1%에 불과**하다. 그런데 러닝을 시작한 지 겨우 3년, 그것도 첫 풀코스 도전에서 서브3를 달성해 낸 창신인이 있다. 바로 BS팀 하정훈 대리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순간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오직 앞으로. 그리고 15일 후, 두 번째 서브3에서 기록을 단축하며 다시 한계를 넘었다. 단 1%만이 해내는 기록, 그 벽을 넘어선 **One in a Million**의 첫 번째 주인공, 하대리가 직접 자신의 러닝 도전기를 전한다.

02:56:45

기록을 넘어, 삶을 바꾸다

“러닝이 나를 바꾼 것이 아닌, 러닝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어”

시작은 작은 호기심에서

러닝을 시작한 계기는 단순했다. 2021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운동이 제한되던 시기였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자연스럽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게 되었고, 그때 러닝이 눈에 들어왔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한 건 러닝화 구매였다. 창신 제품인 ZoomX Invincible Run을 사고 나니 뛰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다. 유튜브에서 러닝 자세와 호흡법을 찾아보며 3km, 5km, 10km... 점점 거리를 늘려갔다. 한 단계씩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이 쌓이니 어느새 러닝의 매력에 빠져 들고 있었다.



SUB-3

02:56:45



10km
00:39:01

연습 끝, 실전 도전!
나의 첫 마라톤 대회
10km 개인 신기록 갱신!

2022 부산 마라톤



FULL
02:57:22

마라톤 골판왕에 도전하다!
첫번째 풀 마라톤에서
곧바로 SUB-3 달성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2023 경주 국제 마라톤

15일 만에 37초 단축 - 더 치열하게

첫 서브3를 해냈지만,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15일 만인 11월 5일, JTBC 서울 마라톤에 다시 도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가장 마지막 출발 그룹인 D조에 배정되면서, 앞선 그룹을 계속해서 추월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거센 비까지 내렸다. 미끄러운 도로, 병목 현상, 젖은 신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웠고, 체력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갔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세 번쯤 들었을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런 최악의 조건에서도 끝까지 해낸다면, 분명 배울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비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비와 함께 달려보자. 다시 오지 않을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자. 그렇게 마음을 바꾸자, 빗줄기는 더 이상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자유롭게 해주는 요소가 되었다.

2시간 56분 45초. 경주의 기록을 37초 단축했다. 두 번째 서브3. 숫자로 보면 단순한 기록이지만, 러너로서 한 층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었다. 한 번 해낸 것은 우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해냈다면, 그건 쌓아온 시간과 노력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결과일 것이다.

러닝이 내 삶을 바꿨다

러닝을 통해 얻은 것은 기록만이 아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업무에서도 집중력이 높아졌다. 매일 달리는 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의 실마리가 떠오르기도 했다.



FULL
02:56:45

폭우에도 굴하지 않는다.
훈련했던 시간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완주하자!
15일만에 2번째 SUB-3

2023 JTBC 마라톤

풀코스를 뒀 때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오직 몸 상태, 호흡, 페이스에 집중할 뿐이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마치 직장 생활과도 닮아 있다고 느꼈다. 먼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앞에 놓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 성장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러닝도 그렇다. 처음에는 하루 3km에서 시작했다. 그게 익숙해지자 5km, 10km, 21km... 그리고 어느새 42.195km를 완주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러닝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었고, 달리는 동안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변화해 갈 것이다.

3월, 다시 한번! 서브3

오는 3월, 서울 동아 마라톤에서 다시 서브3에 도전할 예정이다. 또 다른 목표는, 무엇보다 행복을 위해 달리는 러너가 되는 것이다. 부상 없이,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러닝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창신인 여러분, 함께 달려보는 건 어떨까요? 기록보다 중요한 건,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의 즐거움이니깐.

“그저 준비한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달렸을 뿐”



CEO 두줄 노트

사장님의 생각과 통찰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칼럼으로, 격월지로 전후 두 달 간의 사장님의 인사이트를 두 문장, 두 문단 형식으로 전합니다



창신의 아퀴덕트

고대 로마를 상징하는 건축물 중의 하나인 '아퀴덕트(Aqueducts)' 수로는 고지대의 깨끗한 물을 멀리 떨어진 시내로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물탱크 없이 **중력의 힘을 이용해 물을 일정한 속도로 흘러보내는 원리**로, 미세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아퀴덕트는 **고대 가장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중의 하나로,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은 로마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물의 혁명이자, 로마 제국의 번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창신이 그동안 만들어낸 **린(LEAN) 생산방식, 즉 Value Stream Line이 창신 고유의 수많은 아퀴덕트**라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창신의 아퀴덕트에 **디지털과 AI를 보다 신속하고 스마트하게 접목하여, 혁신의 성과를 더욱 극대화하는 것이다.**

NIKE CEO 엘리엇 힐(Elliott Hill), 창신 첫 방문

“Young generation의 열정과
일에 대한 자부심에 깊은 인상 받아”

1월 15일, 나이키 CEO 엘리엇 힐(Elliott Hill)이 창신 VJ를 처음으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CSO 벵키 알라기리사미(Venky Alagirisamy), CTO 무게 도간(Muge Dogan) C-Suite 임원과 SLT 13명이 함께했으며, 창신 정환일 회장님 역시 이 자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방문은 나이키 CEO가 창신 공장을 직접 찾은 첫 사례로, 그 의미가 각별하다.

행사는 VJ PCC(Product Creation Center)에서 창신의 역사와 미래 비전에 대한 발표 및 쇼케이스로 시작되었으며, 이어서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엘리엇 힐은 “그동안 창신이 이뤄온 성과를 존경하며, 파트너십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특히 창신의 젊은 세대(Young generation)들의 일에 쏟는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나이키와 창신의 파트너십이 한층 더 견고해졌으며, 나이키 CEO의 현장 방문은 창신 임직원들에게 큰 자부심과 동기부여가 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VJ 현장 스케치

VJ PCC 쇼케이스 모습

왼쪽부터 1) 공장 소개 및 주요 모델, 2) MTR, 3) Vomero Plus & Premium, 4) 올림픽 모델, 5) DAM 시연



CSG Overview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DSP 윤예빈 과장

발표

창신의 43년 역사와 나이키와의 파트너십을 돌아 보며, DAM(Digitally Automated Manufacturing)을 통한 Digital Transformation 전략을 발표했다.



대기 중인 쇼케이스 발표 담당자들 모습
왼쪽부터 JJ 김피터윤 이사, AI혁신킴 이진우 상무, MI팀 김구협 대리, Digital Lean팀 김동순 사원, T&F 정재민 과장, VJ 최동원 이사, VJ Trinh Nguyen, VJ 심지훈 부장

쇼케이스

해외법인(VJ, JJ, RJ, QD) 공장 및 주요 모델 소개, MTR(Mutual Trust & Respect) 스토리, Vomero Plus & Premium 모델 소개, Alphafly 시리즈 마라톤 신발 소개와 파리 올림픽 모델 소개, DAM 시연 등 다섯 가지 주제로 쇼케이스가 진행되었다.



VJ Plant M동을 둘러보고 있는 나이키 및 창신 경영진들 모습

생산 현장 투어

VJ Plant M동을 방문하여, 자동화 공정과 디지털 기술이 적용될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다. 창신의 미래 전략을 체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함께 만들어낸 순간, 우리가 남긴 기록

DSP 김미향 팀장

"이번 프로젝트는 회사 전체가 하나 되어 움직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업하며 최선을 다한 덕분입니다. 러닝팀, QD, VJ 주재원 등 모든 분들의 헌신 덕분에 계획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DSP 윤예빈 과장

"첫 발표자로서 무대에 선 순간, 긴장할 틈도 없이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치열한 준비 과정도 팀워크 덕분에 가능했죠. 특히, 나이키 CEO가 강조한 'Lead and Grow with Sports' 메시지 공유를 통해 나이키와 창신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Lean과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더욱 견고히 하고, 러닝 모델인 보메로 플러스를 필두로 함께 모멘텀을 만들어가자는 'Win as a Team'의 메시지를 전하며, 창신만의 차별점을 제품 전략으로 풀어낸 것이 발표의 핵심이었습니다."

ES팀 조한미 과장

"연말부터 베트남에서 보낸 작년 크리스마스는, '하나 되어' 일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특정 부서가 아닌 창신 전체의 일이었고, 각자의 역할을 넘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특히, 정수민 과장이 있어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줘서 정말 힘이 되었고, 덕분에 무사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며 달려온 치열한 준비 끝에 만들어낸 성과였기에, 더욱 값지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Communications팀 유민지 대리

"공식 리허설만 네 번, 그때마다 발표 자료 수정과 디자인 보완이 숨 가쁘게 이어졌습니다. 입구 간판, 현수막, 방문증, 사인보드까지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지만, 현장에서 밤낮 없이 함께해 준 VJ 주재원분들 덕분에 끝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함께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한 시간이었습니다."

MI팀 김구협 대리

"DAM 시연을 통해 나이키 리더십 앞에서 창신의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성 예측 및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디지털 기술을 시연하며, 창신의 역량과 미래 방향성을 보여주었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성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원해 준 많은 창신인의 노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Manufuturing

창신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Manufacturing + Future

Manufacturing | MX Designer

MX Designer _ Manufacturing eXperience Designer

MX Designer들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부서 및 팀 소개를 통해 일상 속 성장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드는 팀, Sportswear. 하지만, 이들이 만드는 '신발'은 단순한 신발이 아니다. 에어맥스 뮤즈, 사카이, 마스야드처럼 시대를 정의할 아이콘을 창조한다. 디자인 디테일 하나까지 파고드는 집착과 집중력. 그들이 머무는 공간은 실험실이자 전쟁터다. 치열하게 갈고닦은 집착의 끝에서 탄생하는 한 켤레의 신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 공개한다.

트렌드를 이끄는 힘, 완벽한 디테일로부터

“내가 소장하고 싶은 신발이 될 때까지”

“G-Dragon이
제가 개발한 신발
또 신게 해주세요 🙏”

GD's Pick!
Mars Yard Shoe 2.0



Sportswear팀 김도운 과장 인터뷰

신발에 대한 깊은 관심이 개발까지 이어진, 그야말로 덕업일치를 이룬 김도운 과장. '신발을 사랑하는 모든 이가 곧 고객'이라는 신념 아래, 완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만의 철학을 들었다

Q Sportswear팀 소개 좀 해달라

일상을 위한 신발, 특정 목적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일상에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든다. 하루 종일 착용해도 편안한 기능을 중시하면서도,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트렌디한 디자인과 다채로운 컬러가 적용된 신발을 개발한다. 에어맥스 시리즈를 비롯한 다양한 콜라보 모델 또한 Sportswear 손을 거쳐 탄생한다.

Q 신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고등학교 1학년까지 8년 동안 쇼트트랙 선수 생활을 했다. 발이 중요한 스포츠였기에 자연스럽게 신발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운동을 그만둔 후에도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신발 수집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200여 켤의 신발을 소장하고 있다.

창신에 입사한 것도 그냥 취미가 아닌, '직접 신발을 개발하고 싶다'는 열정 때문. 덕업일치를 이룬 만큼, 개발 과정에서 '내가 소장하고 싶은 신발'이라는 마음으로 디자인을 구현한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공정 테스트를 반복하기도 하고, 수집한 신발 중 유사한 실루엣을 찾아 비교하며 완성도를 끌어올린다. 내가 진짜 신고 싶은 신발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그동안의 고생이 한 방에 보상받는 기분이다.



Q 애증의 신발이 있다면

단연, 미국 유명 예술가 '툼 삭스(Tom Sachs)'와의 콜라보 모델, 마스야드 슈(Mars Yard Shoe) 2.0이다. 우주화성(Mars)에서 신는다는 독특한 컨셉도 흥미로웠지만, 무엇보다 창신에서 처음 개발을 맡았던 모델이라 더욱 기억에 남는다. 직전 모델인 1.0과 자재는 다르지만, 컬러와 외관 실루엣을 완벽하게 유지하면서도 아티스트 특유의 괴짜스러운 디테일까지 정교하게 반영해야 했다. 왜 괴짜스럽다고 하나면, 텅(tongue, 신발 끈 아래 덮개) 품 전체에 1cm 간격으로 5mm 구멍을 내달라는 요구사항... 신발 개발에 진심인 나조차도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다. 신발을 해부하지 않는 이상 보이지도 않는 부분인데, 굳이 아주 완벽하게 디테일을 살려야 했다.

하지만 출시 후 반응이 터지면서 뜨거운 관심과 치솟는 리셀가. 그리고 G-Dragon이 이 모델을 신었을 때. 그 순간, 그동안의 고생이 한 방에 도파민 폭발로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이 맛에 신발 개발하는 거 아니겠어?



Q 하고 싶은 말

신발의 완성도는 디테일에서 나온다 생각하기에, 때로는 작은 디테일까지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최고의 신발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것. 끝까지 고민하고, 함께 최선을 다해준 프로젝트 팀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함께해 준 프로젝트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Air Max Muse

Sportswear팀의 **밀도 높은 경험이 압축된**
에어맥스 시리즈의 미래를 담은 신발



“스케일도, 스타일도 Sportswear가 리드한다”



Project Team |

TD 박상욱 과장

PE 구원희 부장

TE 김영선 차장



Sportswear팀 박상욱 과장 인터뷰

'Air Max Muse'의 개발 주역 중 한 명인 Sportswear팀 박상욱 과장을 만나 개발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가는 열정을 물었다

Q Air Max Muse는 어떤 신발인가

과거 에어맥스 시리즈의 익숙한 비주얼을 벗어나, 메탈릭 실버 컬러, 높은 아치, 날렵한 쉐입 등 젠지(Gen-Z)를 위해 새로운 실루엣과 구조를 재해석한 모델이다. 에어맥스의 세대교체를 의미하는 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고, 그렇기에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잡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Q 짧은 개발 기간, 어려움은 없었나

솔직히, **비현실적인 개발 일정**이라고 생각했다. 마치 윈테이크 촬영처럼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압박감. 보통 1년에서 1년 반 걸리는 개발 일정을 이번에는 단 9개월 만에 끝내야 했다. 단축된 일정 속에서도 디자인과 착화감까지 완벽하게 구현해야 했다.

10년간 개발을 해오면서 나이키 디자이너가 개발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도적으로 이끄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이번에는 **6개월 동안 매주 패턴을 수정하며 테스트를 반복해야 했다.** 특히 높은 아치 디자인은 착화감을 저하시켰고, 이를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쿠셔닝 강화를 위해 TPU(폴리우레탄) 추가를 결정했지만, 갑피가 2중 구조라 정확한 부착을 위해 걸 갑피를 뒤집어야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이 과정에서 주름이 발생하며 디자인적 결함이 생긴다는 점.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했고, 갑피를 뒤집지 않고 부품을 부착하는 방법이 전례가 없었다.** 정신적, 신체적 부담이 극에 달했다. 하지만 팀원들 모두 '조금만 더 해보자' 그 마음 하나로 끝까지 해결책을 찾아나갔다.

수십 번의 테스트 끝에, 갑피를 뒤집지 않고 TPU를 부착할 수 있는 전용 치구를 개발. 결국 디자인과 착화감 모두를 잡은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Q 시장의 반응이 뜨겁다. 예상했나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신발 초기 컨셉을 받았을 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디자인에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첫 샘플을 보고도 여전히 감이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개발에 집중하는 동안, 고객사에 전달된 샘플 평가가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 추가 컬러 개발 요청이 들어오면서 기대감이 커졌다.** 출시 후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오사카 팝업스토어 및 국내 선발매 완판 등 좋은 소식이 이어지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는 기분이다.

Q 앞으로의 계획

지난해 팀장을 맡았지만, 모델 개발까지 병행하면서 팀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다. 올해는 **팀원들이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발 외 업무의 체계를 정비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단순히 업무를 분배하는 것을 넘어, **팀원들이 더 의지할 수 있는 팀장으로 성장**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건강한 2025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운동을 통해 **정신과 육체 모두 균형 잡힌 한해**를 만들어 보려 한다.



CSG News Pick

해시태그로 보는 창신 #창_뉴_픽

창신의 주요 변화와 뉴스를 해시태그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조직문화

창신의 일하는 방식, 리더들이 변화를 이끈다

창신이 지난해 10월 THE TRACK(CSG Way of Working)을 선포한 데 이어,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2월 14일, 본사 홀원에서 열린 직책자 대상 조직문화 특강에는 그룹 내 80여 명의 리더가 참석했으며, 해외 법인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했다.

이날 강연에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의 한명수 CCO(Chief Creative Officer)가 연사로 초청되어, 조직문화 구축 과정에서 리더의 역할과 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했다.

그는 "일하는 방식이 명확히 정립된 Playbook을 가진 기업은 드물다"며, "창신만의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변화를 주도하고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강을 주관한 조직문화팀 송기욱 팀장은 "이번 강연을 시작으로 창신의 조직문화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를 자연스럽게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Offshore

JJ, '에너지 효율 우수 기업' 인도네시아 TOP2 선정

JJ의 뛰어난 에너지 관리 역량이 인도네시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12월 17일, 인도네시아 에너지 광물자원부(ESDM*)가 주관하는 '2024년 수브로토 어워드**'에서 에너지 효율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2017년 제정된 이 상은 인도네시아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환경친화적 경영을 통해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기업들에게 수여된다. 지난해 100여 개 인도네시아 기업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JJ는 대규모 제조 산업군 부문 최초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JJ는 실시간 전력 사용량 모니터링 및 공정별 에너지 배출량을 정밀 분석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전 임직원 대상 에너지 절약 캠페인 및 교육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JJ 리더십은 "지난해 9월 국제적인 수상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도 JJ의 에너지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더욱 뜻깊다"며, "지속가능한 경영과 친환경 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실시간 전력 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모습



JJ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전사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 ESDM: Departemen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수브로토(Subroto) 어워드: 에너지광물자원부 주최, 전직 장관 수브로토(Subroto)의 업적을 기려 2017년 제정한 상으로 에너지 관리 및 환경친화적 경영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하는 상

창신의 일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QRC에 물어보세요”

업무 중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이전에도 이런 품질 이슈가 있었던가?

자녀 학자금 신청, 어디서 확인하지?

이 문서 어디 있었더라?

⋮

QRC가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이렇게 활용하면
업무 효율 10배 UP!

개발·생산 정보

품질 이슈 해결

인사·총무 규정

“HO24
POWER FLIGHT
모델 특성 알려줘”

“FY23 일본에서
Air Max 90
황변 이슈는 몇 족?”

“자녀 학자금
신청 방법
어디서 확인해?”

QRC가 관련 문서와 함께 답변 제공

**QRC는 창신 지식 기반의 AI 챗봇 서비스로,
창신의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해 줍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

- ✓ 사내 문서 55종 보유
- ✓ AI가 질문의 맥락을 파악해 가장 적절한 답변 제공

앞으로 계획

- ✓ 누적 문서 100종 +
- ✓ 기존 창신 legacy system과의 연동
- ✓ RPA와 결합한 하이퍼오토메이션 구현

더 많은 질문을 기다립니다!

QRC는 창신인들의 질문과 함께 성장합니다.

더 많은 질문이 모일수록, 더 강력한 업무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남긴 질문 하나가, 창신의 3년 뒤 업무 효율성을 바꿉니다.

QRC 접속 링크

<https://qrcbot.changshininc.com>

Trend Catcher

[News Clipping | Vol.74]

고객사 및 신발 산업 트렌드와 뉴스 소식을 알아봅니다

As of January 2025

작성 | 경영기획팀

*타이틀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NIKE

NIKE CEO 엘리엇 힐(Elliott Hill), 취임 후 첫 어닝콜에서 사업전략 발표... “협력사 이익 고려할 것”

- 엘리엇 힐(Elliott Hill), “협력사가 나이키와의 협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협력관계를 재건하는 데에 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힘
- 할인, 판촉 등 과도한 프로모션을 자제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것이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설명
- 이외에도 스포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스포츠 의류 부문과 관련 마케팅에 주력할 방침

연합뉴스

NIKE, 2025 회계연도 2분기(9~11월) 실적 전망치 상회

- 2025 회계연도 2분기(9월~11월) 매출 123억 5천만 달러, 주당순이익* 0.78달러를 기록하며 전문가 전망치 상회
- 블룸버그 통신 “도매 및 의류 매출이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NIKE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
- NIKE 최고재무책임자(CFO) 매튜 프렌드(Matthew Friend), 3분기 매출의 경우 향후 사업 전략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밝힘

*주당순이익: 주식 1주당 기업이 창출한 순이익의 양

한국경제

경쟁사 / 사업

OnRunning, 기능과 패션을 모두 잡은 브랜드로 급부상

- 연 매출 25억 1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약 26% 상승, 2026년까지 매출 2배 달성 전망
- 신소재인 부스트 폼을 활용한 ‘클라우드텍(CloudTec)’ 기술과 치아 모양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인기 요인
- 한국법인(온코리아)을 설립하고 아시아 총괄 대표를 지사장으로 선임하는 등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



Cloudmonster

한국경제

SKECHERS, ‘가성비’ 전략 통했다... 매출 기준 업계 3위 등극

- 지난 5년간 주가 85.4% 상승, 내년까지 매출 약 100억 달러를 달성할 전망
- 실용성과 가성비를 내세운 제품 전략으로 중저가 시장을 공략한 것이 주요
- 손을 대지 않고도 신고 벗을 수 있는 핸즈프리 기능을 더한 ‘슬립인스’ 제품군으로 편안함을 중요시하는 중장년층의 수요 겨냥



Go Walk Anywhere

매일경제

TALK²

Talk to each other. Exchange ideas. Stay connected.



본지는 창신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자료를 허락 없이 무단 복사,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